

# 통일한국에 대한 문학교육의 대응

김 미 영\*

##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선행 연구로부터 얻는 시사점
3. 통일한국 시대 문학교육의 방향 설정
4. 통일한국 시대의 문학교육의 실천
5. 마무리

## 국문초록

이 글은 70 여 년 동안 분단된 한반도에 필연적으로 다가올 통일을 대비하여 통일 ‘이후’ 문학교육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한 것이다. 남북한이 하나의 공동체로 묶이는 통일한국이 도래하면, 그 공동체는 한동안 안온한 질서와 평화로운 분위기 대신 불안한 질서와 갈등과 긴장의 분위기가 지배적일 것이라는 예상을 피할 수 없다. 이 글은 바로, 사회적 혼란에 직면하게 될 통일한국 시대 문학교육의 방향과 실천 가능한 영역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통일을 위한 준비 중 ‘교육’은 중요성과 가치 측면에서 다른 분야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분야이다. 교육통합의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진행된 통일교육원의 연구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진행한 통일을 대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서 이를 알 수 있다. 개별 교과 차원에서의 통일 교육 논의는 객관적인 지식체계를 지향하는 교과보다 사회·윤리 등 이데올로기적 교과들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다. 북한의 경직된 이데올로기에 대한 극복이 통일시대, 사회 및 윤리과목 교육의 핵심적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국어교육에

\*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서는 북한교과서를 통해 북한교육의 경직성을 고찰, 비판한 연구, 교육이념과 목표, 내용과 체제, 교육 방법 차원에서 남북한을 비교하거나 남북한의 국어교육정책 방안을 제시한 연구 등에서부터 시대별 국어교육의 변화 양상, 특정시기의 이상화와 관련한 문학교육 내용 등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통일한국 시대 문학교육의 방향은 ‘이해’에서 ‘소통과 통합’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내용의 기반은 ‘동질성’에서 ‘다양성’으로 그 중심축을 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통일한국 사회가 일종의 다문화 사회라는 전제하에 상호문화주의에 기반한 상호문화 교육정책을 수용하고자 한다.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 자체가 한계성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향은 휴머니즘이다. ‘인간다움’의 존중과 ‘참인간다움’ 찾기를 휴머니즘의 본질로 이해한다면, 이는 통일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할 복잡 다양한 혼란과 무질서를 수습, 정리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통일한국 시대의 문학교육의 실천 덕목은 통일문학사 정립, 문학교과서의 제재 선정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제재 선정은 고전문학과 세계문학에 대한 수용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 이후 문학교육의 모형으로 재중조선족 학자들의 학문적 내용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서사의 활용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 **핵심어** 통일한국, 이해, 소통, 다양성, 휴머니즘, 다문화 사회, 상호문화주의, 통일문학사, 제재 선정, 통합서사

## 1. 들어가는 말

어느 정치학자의 단상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오늘의 사회 현실만큼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서로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실감나게 하는 것도 없다. 잘 알다시피 민주주의를 수립하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희생이 있었다. 그런 투쟁과 희생이

있었기에 그야말로 범국민적이라 부를 만큼 감동적인 대규모 시민 참여의 민주화 운동이 가능했고 이를 통해 권위주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민주주의를 사회적으로 안착시키고 내용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단계에서 우리는 그 이전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발견하게 된다. 이제 민주주의는 더 이상 사람들의 기대와 열정을 만들어 내는 단어가 아니다. 일반 국민은 물론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사람조차 한국 민주주의의 현 상황에 대해 무관심하고 냉담하며 비판적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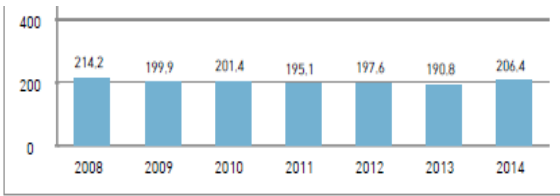
- 최장집(2010),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이 책을 쓴 이유’ 중에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2002년 11월에 처음 출간되었고, 2005년 9월에 1차 개정판을 냈으며, 2010년에 다시 두 번째 개정판이 나왔으므로, 문제의식과 그 문제의식의 사회적 배경은 결코 일시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통일한국을 주제로 삼은 이 글에서 굳이 민주주의를 화두로 삼고 있는 이 책으로 논의를 출발하는 것은 이 책의 문제의식이 통일시대에도 여지없이 들어맞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듯이, ‘통일 이후의 통일한국’에 대한 걱정도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한반도를 뒤덮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문제가 그러하듯이, 통일한국을 만드는 것과 그것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서로 다른 문제임은 자명해 보인다.

이제 교육, 그중에서도 국어교육이라는 영역으로 범위를 좁혀서 가상적인 상황을 상상해 본다. 어느 날 통일이 됐다. 예상대로 소통은 쉽지 않고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육의 역할에 기대를 걸어본다. 그 중에서도 국어교육에서 희망을 본다. 하지만 교사는 부족하고 교재 하나 변변한 게 없다. 막상 교재를 만들려고 해도 제재가 마땅치가 않다. 남북이 공유하는 말과 글, 언어문화가 드물기 때문이다. 다행히 그나마도 문학이 있다. 그러나 수령이 굳건한 레토릭으로 자리 잡고 있고, 종자, 속도전, 인민성으로 수렴되는 북한의 문학작품을 신자니 시대정신에도 역사 의식에도 합당하지 않다. 남한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 찬 남한의 문학작품을 신자니 민망하기조차 하다. 이런 문제를 피해 탈이념적인 클만을 제제

로 고르는 것은 정치적 선택으로는 적절할지 모르나, 교육적 선택으로는 문학과 문학교육의 본질에도 어긋난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국어교육, 그 중에서도 문학교육이 통일한국 시대 언어문화의 소통과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인가. 이것이 이 논의의 문제의식이다.

현 정부 출범 후 2014년 3월 발표한 드레스덴 선언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을 위한 3대 원칙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적 레토리카는 무관하게 다음의 남북 통합지수<sup>1)</sup>를 보면 통일의 가능성은 더욱 낮아져가고 있는 듯하다.



2008~2014년 남북 통합 지수 추이

(출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5 남북 통합 지수』)

1000점이 만점이다. 만점은 가장 이상적인 수준의 통합을 가리키므로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경지일 것이다. 다만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2014년에 약간의 반등이 있긴 하지만, 통합 지수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던 개성 공단이 올해 초에 폐쇄되고 최근에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통합 지수는 다시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짐작된다. 아마도 이 지수는 정치권력의 이념적 선택에 따라 매우 신축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명제에 담긴 당위가 의심받

1) 남북통합지수는 통합의 보편적 원리로서 민주화, 시장경제화, 자유화를 지향한다. 지수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세 영역과 제도, 관계, 의식이라는 세 차원을 교차시킨 3×3 매트릭스로 구성된다. 지수는 객관적인 통계 자료나 남북한 주민 의식조사,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획득된 자료를 토대로 산출된다. 남북통합지수는 총점이 1000점이며, 이중 구조 통합에 750점, 의식 통합에 250점이 배점된다. 구조 통합은 다시 제도적 통합(270)과 관계적 통합(480)으로 배점이 나뉜다. 제도적, 관계적, 의식적 통합의 하위에는 공통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세 영역이 존재한다. <http://tongil.snu.ac.kr/xe/index.php?mid=sub230> 참조.

고 있는 상황에 있다. 2015년도에 있었던 한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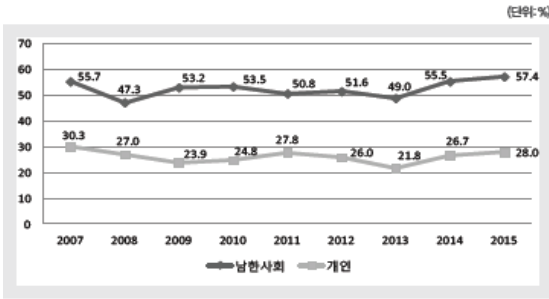
20대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지난해 43.1%였던 데 반해 올해에는 30.7%로 12.4%p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30대에서도 지난해 50.3%에서 올해 36.2%로 1년 사이에 14.1%p가 감소했다. 40대의 경우 전년도 56.5%에서 올해 52.0%로 소폭 감소했다. 올해 조사부터 50대와 60대 이상의 연령그룹을 분리한 결과, 50대 연령층에서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지난해 66.2%에서 올해 63.8%로 감소했으며, 60대 이상에서도 지난해 74.1%에서 올해 73.1%로 감소했지만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5 통일 의식 조사』, p. 39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모든 연령층에서 전년도 대비하여 감소했으며, 특히 20대와 50대 이상의 응답률 격차가 두 배 넘게 벌어졌다는 점, 가장 젊은 응답 집단인 20대와 30대의 응답률의 변화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30대와 40대 사이에서 분기가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된다.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아마도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sup>2)</sup>

흥미로운 점은 통일 편익에 대한 응답률은 아래의 표(같은 자료, p. 52)에서 보듯이 비교적 긍정적이라는 사실이다. ‘남한 사회에 이익이 된다’(57.4%)가 ‘개인적으로 이익이 된다’(28.0%)에 비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높다는 점은 더욱 흥미롭다. 이는 통일이 개인적으로는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남한 사회 전체의 이익에는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희망의 불씨를 믿을 만한 근거로서는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 참고로 같은 조사에서 통일의 이유에 대해서는 ‘같은 민족이니까’(40.7%),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26.3%),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14.0%),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12.3%),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3.9%) 등으로 결과를 집계했다. 이전과 대비하여 앞의 세 항목은 감소, 뒤의 두 항목은 증가 추세임도 특기할 만하다.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 남한사회와 개인  
(‘이익이 된다’ 응답추이)

따라서 오리무중의 국제 정세와 남북 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라도 통일은 필연적으로 다가오고 말 것이라는 희망을 버릴 수는 없다. 다만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일

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sup>3)</sup> 문제는 남북한이 하나의 공동체로 묶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점, 그러나 그 공동체는 한동안 안온한 질서와 평화로운 분위기 대신 불안한 질서와 갈등과 긴장의 분위기가 지배적일 것이라는 점이다. 이른바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이나 이질적인 문화 요소의 충돌로 인한 사회적 혼란의 증가는 명약관화하다. 이 글의 의미를 말한다면 바로 이 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통일한국 시대에 문학이, 그리고 문학교육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아가 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우리의 화두이기 때문이다.

3)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주요 통일 정책은 다음과 같다.(통일교육원, 2014)

통일방안	특징	발표 시기 (정권)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통일과 관련된 내용 처음 헌법에 규정(1987년) -통일헌법 및 헌법에 따른 통일 민주국가 완성의 과정과 절차를 처음으로 제시	전두환 (1981~1987)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민족자존과 통일변명을 위한 특별선언(1988년)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 처음 제시	노태우 (1988~199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점진적·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 -대북 화해협력 정책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1993~201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남북관계의 발전·한반도 평화정착·통일기반 구축	박근혜 (2013 이후)

## 2. 선행 연구로부터 얻는 시사점

통일을 위한 준비 중 ‘교육’은 중요성과 가치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분야보다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분야이다. 기존의 수많은 통일 교육 관련 연구들은 통일 이전까지의 준비 단계와 통일 이후에 두루 걸쳐 있다. 문제는 통일 교육이 ‘도덕, 사회’ 등 특정 과목에 한정되어 있는 데다, 통일 교육의 목표, 교육제도, 교육 정책 등 시스템에 대한 구상에 맞먹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도 빈약하다는 점이다. 현재 통일 교육은 대체로 비전의 제시는 소홀히 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당위적으로 주장하며, 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교육 분야에서는 통일한국 시대의 교육 제도, 교육 철학 등에 대한 범교과적 합의가 요구됨과 동시에 교과 교육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국어교육은 우선 민족 간 이해와 화해를 위해서라도 이에 필요한 언어문화적 역량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도구 교과로서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가령 어떤 말에 대한 이해가 달라 오해가 생기는 사태는 피해야 할 터인데 그 차이를 최소화하는 일차적인 책임은 국어 교과에 있는 것이다.<sup>4)</sup> 남한과 북한의 교육 체계에 존재하는 제도적 요소들 이외에 교육적 콘텐츠의 차이는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실질적인 의미로 소통되는 말이 중요한 콘텐츠로 나설 수밖에 없다.

4) 다음과 같은 인터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뷰 대상자는 본인 스스로 탈북자이면서 현재는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다. “이 곳 분들은(남한 사람들은) 인사말로 보통 “언제 밥 한 끼 먹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새터민들은 마냥 기다리고 계십니다. 약속이 되었다고 믿고 말이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을 뿐인데 “밥 한 번 먹자더니 언제 연락 오지?” 하며 기다리다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국립국어원, 『새국어생활』 22-3면, 2012.)

5) 박종철 외,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 방향』, 통일연구원, 2013, 171면.

이와 같은 맥락에서 통일시대 국어교육에 대해서는 교과 내외적으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통일연구원에서는 남북이 교육이념, 목표, 제도,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 전 영역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교육의 방해 요소라는 점에 주목하여, 교육통합의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평화공존상황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미래를 예측한 후, 교육 통합 방향성을 재구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였다.<sup>6)</sup> 교육과정평가원(2014)은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교육과정 개발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통일을 대비한 교육과정 개발이 시급한 사회적 요구 사항이고, 통합 연구의 필요성과 과제, 통합 연구의 방향 및 동질성을 지향하는 프로그램 개발, 탈북 청소년 사례 분석을 통한 교육 과제 도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별 교과 차원에서 보면, 통일 교육에 대한 논의는 수학·과학 등 객관적인 지식 체계를 지향하는 교과보다 사회·윤리 등 이데올로기적 교과들에서 활발하게 일어난 바 있다. 사회과에서는 통일이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문제 상황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윤리과에서는 통일이라는 상황에서 취해야 할 태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논의들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통일 교육 상황에서의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갈등이다. 특히 최근 조사에서는 남북통일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 패러다임이 ‘민족주의’를 탈피하고 있어, 교육에서도 ‘민족 정체성’과 관련된 이데올로기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다문화주의가 대두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남한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통합에서의 장단점으로 동시에 거론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수령을 정점으로 내세우는 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통일에서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전제되며, 이는 북한의 교육 상황에 대한 논의 모두에서 나타난다.<sup>7)</sup> 이상의 논의들은 북한의 경직된 이데올로기에 대한 극복이 통일시대

6) 한만길 외, 『남북 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교육통합 방안 연구 - 남북한 평화공존상황을 중심으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1.



사회 및 윤리 과목 교육의 핵심적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제부터는 국어교육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국어 교과에서는 통일 이후 국어 교육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남북한 국어 교육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와, 이에 대한 비판적 점검을 통해 통일 이후 국어 교육의 지향점을 설정하고자 하는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남북한의 이질성에 대한 인식은 북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 대표된다. 북한 교과서를 통해 북한 교육의 경직성을 고찰하고 이에 대해 비판한 논의<sup>8)</sup>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나아가 김정일 시대라는 특정 시기에 이상화 등 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 문학 교육 내용에 대해 분석하거나,<sup>9)</sup> 김일성·김정일 시대를 나누어 분석하여 북한 국어 교육의 변화 양상을 파악한 연구<sup>10)</sup>들은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검증한 연구<sup>11)</sup>와 함께 국어 교육의 콘텐츠가 이데올로기와 밀착되어 있다는 점을 검증한 연구들로서, 통일 이후 국어 교육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데올로기 차이를 극복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으로는 현재 남북한 국어 교육 내용을 비교하여 차이를 분석, 검증한 연구들도 있다. 크게 이념과 목표, 내용과 체제, 교육 방법 차원에서 남북한을 비교 분석한 연구<sup>12)</sup>, 남북한의 국어교육 정책 방안을 제시한 연구<sup>13)</sup> 등이 그것이다. 최근에는 통일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 
- 7) 엄재호 외, 『대학 통일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평화연구』 21, 경북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 1996.; 차승주, 『김정일 시대 북한의 학교 통일교육』, 『북한학연구』 8,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2012.
- 8) 임철성, 『북한의 화법교육연구』, 『새국어교육』 53, 한국국어교육학회, 1996.
- 9) 임옥규, 『북한 교과서 개편에 따른 문학교육 양상-김정일 시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기술』 13, 단국대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12.
- 10) 이인제, 『북한의 국어과 교육에 관한 연구』, 교원대 박사학위 논문, 1996.; 홍지선, 『북한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 연구-『국어문학』 교과서와 『문학』 교과서의 비교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38,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 11) 박인기, 『남북한 국어교육 연구의 성과와 전망』, 『국어국문학』 115, 국어국문학회, 1995.
- 12) 박갑수, 『남북통일 대비 국어교육의 문제-남북한 언어의 통일을 위한 과제』,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1,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1999.

통일 시대 어문교육이 명제적 통일에서 당위적 통합으로, 민족에서 소통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함을 촉구한 연구<sup>14)</sup>도 있다.

국어과 내 개별 영역별로는 읽기·화법 영역에서 교수요강, 교과서, 교수안 등을 분석하여 북한의 이질적인 교육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sup>15)</sup>, 고전 문학 영역에서 민족주의를 성찰하고 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sup>16)</sup>와 통일 이후의 고전문학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목표 모형과 내용 모형의 층위로 나누어 동질성 회복과 고전적 가치 탐구로 제안한 연구<sup>17)</sup> 등이 주목된다.

이상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통일 이후의 교육 설계에서 고려·극복·지향되어야 하는 점들은 우선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단계적 통일 방안 및 연방·연합제 등의 각 통일 방안 등 예측하고 있는 여러 사회적 통일 양상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고, 각각의 상황과 밀착된 교육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남북한에서 각각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이데올로기 및 현재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통일 이후 오히려 사회적 혼란의 매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국어교육만이 아니라 교육 일반의 층위와 모든 교과교육에서 두루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다.

국어교육에 초점을 맞추면 다음과 같은 당위적 요청이 떠오른다. 첫째, 현재까지의 남북한 교육과정의 차이를 면밀하게 검토한 연구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한편, 교육 내용 개발을 통해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구안해야 한다는 점이다. 남북 통일시대의 교육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

13) 박영목·이인제, 『통일에 대비한 국어교육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15-1, 이중언어학회, 1998.

14) 김중신, 『통일시대 어문 교육의 방향』, 『국어국문학』 168, 국어국문학회, 2014.

15) 이인제, 위의 글, 2012.

16) 한길연, 『한민족 통일시대를 위한 고전소설의 성찰과 모색』, 『어문학』 127, 한국어문학회, 2015.

17) 주재우, 『통일 이후 고전문학 교육과정 개발 방향』, 『어문학』 127, 한국어문학회, 2015.

는 대체로 학제 개편 등 하드웨어에 치중되어 있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교육 내용이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희소하기도 하지만 소박하다. 교육과정과 교재, 제재 선정 등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통일 이후에 문학이 중핵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고 문학교육의 역할이 중차대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sup>18)</sup>

둘째, 이러한 연구들은 반드시 통일 이후 학제 개편과 전체 교과 개편 상황에서 국어 교과역의 역할과 정체성을 밝힐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통일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어교육의 정상적 실행을 저해하는,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비용이 아니다. 국어교육은 분단으로 인해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국어와 국어 능력의 본질에서 벗어난 파행을 겪어 왔다. 따라서 통일시대 국어교육은 비정상적인 국어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동일한 언어로 서로 다른 이념과 사상을 이해하고 표현해 온 두 집단이 소통과 통합을 넘어 새로운 언어문화를 창조적으로 향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날의 국어교육과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프레임과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발표에서는 이러한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소화할 여유가 없다. 대신 통일한국 시대, 그중에서도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통일 초기에 문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보고,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이 무엇일지를 가늠해 보는 데 집중할 것이다.

18) 통일 이후의 국어교육을 화두로 삼은 연구서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체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김대행(2008)에서 내세운 대전제도 이것이다. 이 연구서에서는 통일 이후 문학교육의 이념을 개인의 성장, 민족문화의 계승과 창조, 인류공동체의 구현으로 설정하면서,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3. 통일한국 시대 문학교육의 방향 설정

범교과 학습 주제만을 기준으로 보면, 통일 교육은 1차 교육과정기에는 반공 교육, 2차 시기에는 반공도덕 교육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고, 3차와 4차 시기에서는 범교과 학습 주제에서 배제된 적도 있었다. 통일 교육이 범교과 학습 주제로 명시된 것은 5차 교육과정기부터이지만(통일 안보 교육), 6차 교육과정기부터는 ‘통일 교육’으로 자리를 잡았다<sup>19)</sup>.

문학교육에서도 교과서에서 통일 관련 작품을 배치하고 학습 활동을 구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교과 학습 주제를 수용해 왔다. 그런데 이때 통일 교육은 대체로 통일 이후보다는 통일이전 단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주로 분단의 상처와 통일의 당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부족해 보인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현재의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서는 북한 문학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다. 가령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탐구를 유도하는 성취기준이 교육과정에 있으므로 교과서를 통해 북한 문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만도 한데 그러한 작품도, 학습 활동도 찾아 볼 수 없다.<sup>20)</sup>

통일 이전 단계에 초점을 맞춘 문학교육도 이러하거늘 통일 이후, 즉 통일한국 시대를 염두에 둔 문학교육은 우리의 상상력이 가 닿을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 아닐 수 없다. 아니 문학교육 이전에 통일한국의 사회상을 그리는 일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다. 통일은 아마도 한국 사회에서 인식론적 단절을 불러일으킬 만한 거대한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19) 박순경, 『한국 교육과정에서의 ‘범교과 학습’의 실태와 개선 방안』, 『교육과정연구』 24, 한국교육과정학회, 2006.

20) 물론 교육과정에는 북한 문학의 존재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다. 교육과정에 준해서 교과서를 편찬하는 관례를 고려해 보면 이와 같은 결과는 당연하다. 이 점은 남북한 언어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문법 영역의 성취기준과 대비된다.

이 논의를 위해서는 상상력이 매우 필요하다. 다행히 통일 이전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재의 통일 교육이 있기에 우리가 발휘하고자 하는 상상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현재의 통일 교육은 대체로 목표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내용 차원에서는 동질성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당위론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부터는 통일한국 시대에는 그 초점과 기반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를 가늠해 보기로 한다.

어떠한 경로를 밟아서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이 되든, 통일한국 사회가 일종의 다문화 사회가 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그것도 아주 명실상부한 다문화 사회이다. 그렇다면 통일한국 시대가 도래했을 때에도 현재에 국가적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 정책을 확장시키면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의외로 대폭 축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예상보다는 간단치 않은 일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우선 다문화 정책 자체의 한계가 있다. 일찍이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의 다문화 국가에서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에 기반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물리적 충돌마저도 불사하는 사회적 갈등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인종 간 반목과 분쟁의 여지를 없애지는 못하고 있다. 다문화 정책이 기대보다 효과적이지 않은 것은 다문화주의의 근본적 한계에서 말미암는다. 다문화주의는 집단과 개인의 관계에서 집단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집단의 전체성이 개인의 내적 다양성을 무시한다는 것이 그 한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문화주의가 동화주의적, 차별·배제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 또한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더욱이 다문화주의는 통일을 정당화하는 모든 당위론의 굳건한 뿌리였던 민족주의를 위배하기도 한다. 근본적으로 소수의 문화적 권리를 옹호하는 다문화주의는 윤리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이상을 지향하지만 공동의 문화가 제공하는 사회적 연대감이나 결속력을 해칠 수 있는 부정적인 요

인도 잠복해 있다. 민족적 동질성을 명분으로 통일을 완수했는데, 그때부터 동질성의 가치를 부인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를 다문화주의를 극복 혹은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연합이 미국의 다문화주의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상호문화주의를 다문화 사회의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다문화주의와 구별되는 상호문화주의의 미덕 때문이다. 박영자<sup>21)</sup>에 따르면, 상호문화주의는 차이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다문화주의와 달리 타자와의 경계 및 접촉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 간섭·방해·의존·침투를 모두 중시한다. 또한 다문화주의에서 중시하는 다양한 집단의 인정 투쟁만이 아니라 사회 집단과 환경과의 전체적 관계를 중시하며, 타자 및 이방인에 대한 인식과 인정만이 아니라 자신과 타자 사이의 틈새, 그 사이에 작용하는 인식과 전망에도 주목한다. 요컨대 상호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다문화주의를 포괄하면서 초월하는 개념이며, 단일문화와 다문화, 동화 정책과 인정 정책을 조화롭게 수렴하는 시도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상호문화주의는 ‘대화적 긴장 관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긴장을 형성하는 여러 축들의 공존을 도모하는 이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문화주의에 기반한 상호문화 교육 정책은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상호문화교육은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인식과 태도를 함양한 세계 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sup>22)</sup>에서 전지구적 흐름과 보조를 맞춘다는 추가적인 의의도 있다.

그렇다면 통일한국 시대 문학교육의 목표는 ‘이해’에서 ‘소통과 통합’으로, 내용의 기반은 ‘동질성’에서 ‘다양성’으로 그 중심축을 이동하면서 설

21) 박영자, 『다문화 시대의 한반도 통일·통합의 가치 및 정책 방향: 상호문화주의 시각과 교훈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17-1,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2.

22) 오영훈, 『다문화교육으로서 상호문화교육-독일의 상호문화교육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15-2,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09.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학교육을 통해서 남한이 북한을, 북한이 남한을 ‘이해’하는 일이 통일을 대비하면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유지되는 중심축이었다면, 통일 이후에는 성장기의 문화적 기억이 선명히 다른 두 개의 한국 시민이 한 공간에서 서로 소통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문학교육의 중핵적인 목표로 나선다. 또한 한민족/한 민족이라는 신화적 논리에 근거한 동질성이 통일의 그 시점까지 유효한 전략적 거점이었다면, 통일 이후에는 동질성보다는 다양성에 근거한 공동체 쪽으로 교육 내용 선정의 기준 축이 옮겨가는 것이다. 이것이 문화상호주의의 이념에 합당한 논리적 귀결이다.

가령 이런 풍경을 상상해 본다.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문학 작품의 목록이 있다. 주로 고전문학, 일제 강점기부터 분단 이전까지의 문학, 그리고 세계 문학이다. 그런데 작품에 대한 접근 방법도, 시각도, 평가도 같을 수는 없다. 이른바 통합 서사도 마찬가지이다.<sup>23)</sup> 결과적으로는 고풍을 하더라도 그 근거는 다를 수 있다. 남북한의 학생들도 어느 정도는 각각 그러한 방향으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문학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화적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상호문화주의적 교육의 전형적인 한 풍경을 그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도 우리가 끝내 견지해야 할 이념이 있다면 그것은 휴머니즘이다. 휴머니즘은 각 시대에 따라 실로 여러 가지 사상 형태로 등장한다. 그러나 그 본질이 자기중심주의, 자국 중심주의에 있지 않으며 끊임없이 자기를 초월함으로써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 데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인간다움(humanitas)’의 존중과 ‘참인간다움’ 찾기를 휴머니즘의 본질로 이해한다면, 이는 통일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할 복잡 다양한 혼란과 무질서를 수습, 정리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으로 굳게 서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23) ‘통합 서사’는 김종균(2015)에서 제안된 개념이다. 분단 체제 속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갖는 이념적 적대 정서에서 기인한 분단 서사를 완화시키는 일련의 인간 활동으로서, 사회를 통합시키는 장치로서 그 개념이 규정된다.

개인의 성장, 민족문화의 계승과 창조, 인류 공동체의 구현이라는 통일 이후 문학교육의 이념<sup>24)</sup>도 자연스럽게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4. 통일한국 시대의 문학교육의 실천

이제, 통일한국 시대의 사회변화에 따른 문학교육의 방향을 준거로 하여 문학교육을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천 덕목들을 살펴볼 차례이다. 통일한국 시대의 문학교육은 두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진행할 수 있다. 하나는 통일한국 시대로 ‘향하는’ 도정 안에서 실천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통일한국 시대를 맞이한 ‘이후의’ 시기에 가능하다. 즉 통일의 축제 분위기와 축제가 끝난 이후에 몰려올 사회의 혼란스런 양상들을 모두 수용하면서 실천해야 하는 문학교육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통일한국 시대 문학교육의 목표를 ‘이해’에서 ‘소통과 통합’으로 설정하고, 내용의 기반은 ‘동질성’에서 ‘다양성’으로 그 중심축을 이동할 경우, ‘이해’는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이라 하겠다.

##### 1) 이해차원의 문학교육 실천 영역

###### ① 북한 문학 및 문학교육의 지속적인 소개와 이해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은 7차 교육과정 및 개정 2009, 2011 교육과정에 이르는 동안 구체화되었다. 2012 고시 새 문학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여 현대소설수록 양상과 통일교육의 반영을 살펴보았을 때 11종 중에서 8종의 교과서는 통일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는 단원을 설정하였다. 대단원이나

24) 김대행, 『통일 이후의 문학교육』, 서울대출판부, 2008.



소단원의 학습목표에 ‘통일’이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해제와 학습내용에서 ‘분단극복의 지향’이라든가 ‘통일문학 건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통일시대를 대비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수록된 소설이 『광장』과 『장마』, 북한소설은 림종상의 『쇠찌르레기』와 홍명진의 『우주비행』으로서 다양하지는 않았지만<sup>25)</sup> 통일교육의 차원에서 북한소설을 소개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겠다. 따라서 문학교육의 내용영역에 통일한국을 대비한 ‘북한문학 이해’ 단원을 고정적인 지면으로 할당하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이다.

또한, 북한문학에 대한 이해는 재중조선작가들의 작품을 통한 간접적인 경로로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격정시대>로 알려진 김학철은 초기 조선족 문학의 대표 작가로 항일운동 체험을 중심으로 한 문학세계를 갖고 있다. 1세대와 달리, 중국의 문화대혁명 이후에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조선족 작가들인 김훈, 우광훈, 최홍일, 리혜선 등<sup>26)</sup>과 같은 문인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읽는다면 역으로 북한문학의 실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② 남북한 문학사 이해

남북한 문학에 대한 개별적인 이해는 나아가 남북한 문학사에 대한 이해를 요청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통일문학사 및 통일문학교과서 공동편찬 준비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통일 이후에 통일문학사 과제에 착수하는 것은 너무 늦은 작업이 될 것이다. 국어학 분야에서는 지금 현재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sup>27)</sup>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고려할

25) 김미영, 『‘통일교육’을 위한 ‘문학’ 교과서 개선방안 연구-2012 고시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 교과서의 현대소설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한국문학교육학회, 2015.

26) 김정옥, 『조선족 “지식청년” 작가의 의식세계 연구』, 연변대학 아세아-아프리카 언어학 석사학위논문, 2011.

27) 1989년부터 시작된 통일국어대사전의 시작은 2007년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이 공포되면서이다. 이 법 제1조에 의하면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

때 문학부분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해 차원의 문학교육 실천은 문학사 기술에 북한문학을 소개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북한소설을 소개하고 있는 김윤식·정호웅의 『한국소설사』<sup>28)</sup>에는 그 내용이 매우 소략하게 다루어졌다. 그러나 민족문학사연구소에서 간행한 『북한의 우리문학사 재인식』<sup>29)</sup>과 같은 문학사에서는 북한문학을 통시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생소한 북한 작품과 문학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문학사에 대한 교육 및 연구는 이해 단계를 넘어 소통과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한 영역이다. 물론, 남한과 북한이 각 체제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며 기술하는 문학사가 통합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에 1950년대 이후 최근까지도 남북한의 문학사를 통합 서술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학사적 분단의 재검토를 통해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해진 북한문학과의 상호 이해와 교류, 통합방안을 다시 고민할 때이다. 북한문학의 실체를 인정하고 부단히 소통하며 남북 문학의 공존을 서술해야 우리 민족문학사의 재통합이 가능할 것이다<sup>30)</sup>.

북한문학사 중에 주목할 것은 1958년 간행된 『조선문학통사』, 1981년 간행된 김하명·류만·최탁회·김영필의 『조선문학사』, 1986년에 간행된 박종원·류만의 『조선문학개관』, 그리고 1991년 이후 2000년까지 15권으로 기획된 『조선문학사』이다. 이러한 문학사의 변천을 보면 식민지시대의 작품에 대한 평가에 변화가 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으로 한다.(<http://www.gyeoremal.or.kr/gyeore/intro.php>)

28) 김윤식·정호웅 지음,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7.

29) 민족문학사연구소 남북한문학사연구반, 『북한의 우리문학사 재인식』, 소명출판, 2014.

‘북한의 우리문학사를 재인식하자’는 취지의 이 책은 문학사의 대상을 원시, 고대, 중세, 근대, 현대문학 등 전 시기를 망라하여 남북한의 문학사 서술을 미학·서술 체계·내용 구성·작가 작품론별로 논의하고 있다.

30) 김성수, 「통일 담론과 남북한 문학사 소통방안」,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학회, 2014, 155면.

1958년의 『조선문학통사』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문학적 이념으로 삼고, 카프문학을 혁명적 전통으로 수용하여 카프작가를 우위에 두고, 그들의 개별 작품을 해설하는 방식으로 문학사를 구성하여 조명희·리기영·한설야·송영·최서해가 중심 작가로 언급된다.<sup>31)</sup> 그런데 1981년 간행된 김하명·류만·최탁희·김영필의 『조선문학사』는 계급적 관점에서 소설을 주제별로 묶는 기술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중장편소설의 발전을 부각시키면서 이기영의 『고향』과 강경애의 『인간문제』, 현진건의 『무영탑』 등을 농민의 계급적 각성과 근로자의 투쟁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sup>32)</sup> 『조선문학개관』은 전반적으로 『조선문학사』의 기술 내용을 따르되, 『조선문학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현진건의 『무영탑』과 『흑치상지』, 그리고 홍명희 『림격정』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채만식·심훈·이효석을 기술하는 절을 따로 설정해 ‘동반작가’들로서 세계관 및 미학적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당대 현실의 불합리성을 예리하게 비판하고 선진적 이상을 진실하게 사실적으로 구현한 작품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sup>33)</sup>.

2000년대 간행된 『조선문학사』7에서는 최남선과 함께 전면 복권된 이광수의 언급이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sup>34)</sup> 이전의 문학사에서 이광수, 김동인, 염상섭 등은 ‘반인민적, 퇴폐적, 반동’ 작가로 낙인찍힌 상태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그런데 2000년의 『조선문학사』7에서 이광수를 비롯한 김동인, 염상섭 등의 다른 작가군에 ‘반동 작가’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동인지의 출현에 대해서도 이것은 이 시기 부르조아 문학의 한 유포를 이루었다는 식으로 객관적 사실을 나열하는 식의 가치 중립적 평가

31) 오창은, 『계급의식과 민족의식, 갈등과 화해의 도정-북한에서의 1920년대 후반기부터 전반기의 문학사 서술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50, 민족문학사학회, 2012.

32) 오창은, 위의 글.

33) 오창은, 위의 글.

34) 오태호, 『북한문학사의 근대소설에 대한 인식론적 변화 양상 고찰-『조선문학사』 7(2000)의 1910~1926년 시기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50, 민족문학사학회, 2012.

가 이루어지고 있다.<sup>35)</sup>

이와 같은 북한 문학사의 검토를 통해 남과 북이 좀 더 객관적으로 작품을 평가한다면, 문학에서의 소통 가능성을 미약하게나마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남북 문학사에서 주목하는 텍스트는 통일한국의 시대에서는 문학교육의 주요 텍스트로 선정하여 다양한 이념의 잣대로 접근해 보는 것이 작품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 ③ 탈북자 제재의 문학작품 이해

통일 이전의 문학교육 단계에서는 북한문학과 북한문학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북한문학의 이해를 위해서 주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상은 탈북자를 제재로 한 작품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는 북한 문학에 대한 이해보다는 북한주민의 삶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살펴볼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탈북자 제재의 문학이 대부분은 남한의 작가에 의해서 형상화되었기 때문에 북한문학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작품을 통하여 북한주민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면, 분단의 간극을 해소하는 데에는 도움을 받을 것이다.

## 2) 소통·통합 차원의 문학교육 실천 영역

북한에 대한 이해, 북한 문학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그 다음에 실천할 문학교육은 통일 이후의 ‘소통’과 ‘통합’을 실천하는 영역이 되겠다.

### ① 통일문학사 및 통일문학교과서 활용

통일문학사와 통일문학교과서의 활용은 통일한국의 전 단계에 이미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지니고 있다. 오랜 분단기간에서 비롯된 남북한

35) 오태호, 위의 글.

주민의 이질적인 정서를 극복하고, 통합할 수 있는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의 설정이 필요하며 그에 합당한 텍스트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② 다문화 제재를 활용한 문학교육

통일한국 시대를 맞이한 ‘이후의’ 사회적 혼란은 20, 30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통일교육원(2013)의 예측 결과로 보아 이러한 혼란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주요한 일이며 그것은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이때 문학교육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이다. 단계적 통일에 의해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우리와 오랜 시간 단절되었던 북한문화와의 통합은 사실상 ‘다문화적 상황’으로 드러날 것이다.

남한과 북한은 분단 체제의 지속으로 인하여 혈통은 같을지언정 문화는 타 민족의 문화를 대면하는 것처럼 상이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통일 직후,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서로 자신의 문화가 위협에 직면하는 ‘문화 충돌’의 혼란한 사회로 여겨질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문화 사회와 유사한 모습이 될 것이다.<sup>36)</sup> 따라서 통일을 준비하는 시기에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

통일 시대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역량 중의 하나가 ‘간문화적’ 역량이 될 수 있다. 이 역량은 넓은 의미에서 자신과는 상이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소통을 하는 데 필요한 능력들의 복합체를 의미한다.<sup>37)</sup> 통일한국에 요구되는 문학교육은 문학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문학을 ‘통한’ 교육이어야 한다. 문학을 통하여 간문화적 역량을 신장시킴으로써 남북한 주민이 성숙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6) 김미영·유리, 『통일시대 문학교육의 한 방법, 간문화적 역량을 중심으로-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청람어문학회, 2015, 136면.

37) 추병완, 『통일교육에서의 간문화 역량 계발』, 『윤리교육연구』 33, 한국윤리교육학회, 2014.

## ③ 고전문학을 활용한 문학교육

‘소통’과 ‘통합’을 지향하는 문학교육은 고전문학과 세계문학에 주목하는 강도가 현재보다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고등중학교 ‘국어’, ‘국어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중에서 남북이 공유하는 고전 문학은 <거북이 노래>, <공후인>, <혜성가>, <주몽전설>, <정읍사>, <청산별곡>, <사모곡>, <서경별곡>, 김종서의 시조 <삭풍은~>, 남구만의 시조 <동창이~>, <관동별곡>, <태평사>, <선상탄>, <강강수월래>, <금오신화>, <홍길동전>, <사씨남정기>, <양반전>, <임진록>, <전우치전>, <허생전>, <심청전>, <홍보전>, <토끼전>, <춘향전>, <배비장전>, <채봉감별곡> 등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의 양적 비율만을 놓고 볼 때, 북한에서는 남한에서보다 문학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학적 인 글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학 제체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고전문학 작품의 수록 비율은 매우 낮다. 고전문학 작품이 북한의 사회 정치 체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실용문이나 현대문학 작품에 비해 ‘주체적인 혁명인재의 양성’ 교재로서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sup>38)</sup> 수록 편수가 비교적 제한된 고전문학의 경우 남북한에서 상이한 해석을 하고 있는 텍스트들도 있지만 때로는 <청산별곡>을 유랑민 계급으로 접근한다든가, 작자가 사대부인 정철의 <관동별곡>을 수록한 이유가 화자의 연군지정을 ‘충성심’으로 받아들인 예처럼 남한에서의 해석 방식을 부분적으로 북한에서도 드러내는 사례가 있다. 남북한의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었던 작품들은 분단의 시간만큼 두터워진 이념의 잣대에 의해 상이한 해석을 하게 되지만, 작품 자체의 아름다움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이념의 창작 배경을 전제하면서 수용하려 할 때 소통이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많이 알고, 읽고, 감상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38) 이상일, 앞의 글, 2006.

## ④ 세계문학을 활용한 문학교육

통일한국의 도래 이후 문학교육에서 세계문학을 주목하는 이유는 다문화시대, 또는 글로벌 시대의 특성을 문화적으로 수용할 때 세계문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적합한 장르이기 때문이다. 북한 고등중학교 4, 5, 6학년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외국문학은 학년당 4작품씩 12명의 작가가 수록되어 있다.

북한교과서에 나타난 세계문학을 살펴본 권지은에 의하면,<sup>39)</sup> 4학년에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라관중의 <삼국연의>,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다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우>, 5학년에 빅토르 유고의 <레 미제라블>, 장광자의 <압록강가에서>, 발자끄의 <우제니 그랑데>, 로신의 <축복>, 6학년에 마야콥스키의 <쏘베트 려권>, 고리끼의 <어머니>, 양말의 <청춘의 노래>, 오스트롭스키의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가 수록되어 있다. 작가에 대한 정보는 작가의 생애, 활동, 창작 작품 소개를 문학사와 함께 본문 앞에 제시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외국문학 작품은 <일리아스>, <삼국연의>, <베니스의 상인>, <레 미제라블>, <어머니> 등이다. 이 중에서 <베니스의 상인>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 발췌 부분은 남북한 모두 ‘포샤가 샤일록을 재판하는 장면’이다. 남한과 북한이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학습요소의 자세한 진술부분에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공통적인 학습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공통적인 학습요소는 ‘작품의 줄거리, 작가에 대한 지식, 인물에 대한 평가, 작품의 시대적 배경, 작품의 주제, 작품의 특징’ 등을 살펴보는 대목이다. 동일한 작품을 두고 북한의 경우는 ‘작품의 제한성’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작품의 제한성’이란 학습요소는 북한만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작품을 ‘당성, 계급성, 인민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39) 권지은, 『북한의 외국문학 교육에 대한 교재론적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6, 112쪽.

외국문학에 나타난 인류의 보편적 가치들을 통해 통일시대 남북한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동질감 형성’과 ‘실제적인 상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과 북한은 이념의 차이로 인해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이 점점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름이 아닌 서로 같음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외국문학을 통해 문화와 환경의 차이 때문에 사는 모습이 달라도 인류의 공통되고 보편적인 정서를 드러내 줌으로써 비슷한 생각과 감정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남한과 북한은 인류 보편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 5. 마무리

이 글은 70 여 년 동안 분단된 한반도에 필연적으로 다가올 통일을 대비하여 통일 ‘이후’의 문학교육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한 것이다. 남북한이 하나의 공동체로 묶이는 통일한국이 도래하면, 그 공동체는 한동안 안온한 질서와 평화로운 분위기 대신 불안한 질서와 갈등과 긴장의 분위기가 지배적일 것이라는 예상을 피할 수 없다. 이 글은 바로, 사회적 혼란에 직면하게 될 통일한국 시대 문학교육의 방향과 실천 가능한 영역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통일을 위한 준비 중 ‘교육’은 중요성과 가치 측면에서 다른 분야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분야이다. 통일연구원이 교육통합의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것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통일을 대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서 이를 알 수 있다. 개별 교과 차원에서의 통일 교육 논의는 객관적인 지식체계를 지향하는 교과보다 사회·윤리 등의 이데올로기적 교과들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다. 북한의 경직된 이데올로기에 대한 극복이 통일시대, 사회 및 윤리과목 교육의 핵심적 과제 중 하나가 될 것



임을 시사한 것이다. 국어교육에서는 북한교과서를 통해 북한교육의 경직성을 고찰, 비판한 연구, 교육이념과 목표, 내용과 체제, 교육 방법 차원에서 남북한을 비교하거나 남북한의 국어교육정책 방안을 제시한 연구 등에서부터 시대별 국어교육의 변화 양상, 특정시기의 이상화와 관련한 문학 교육 내용 등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통일한국 시대 문학교육의 방향은 목표는 ‘이해’에서 ‘소통과 통합’으로, 내용의 기반은 ‘동질성’에서 ‘다양성’으로 그 중심축을 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통일한국 사회가 일종의 다문화 사회라는 전제하에 상호문화주의에 기반한 상호문화 교육정책을 수용하고자 한다.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 자체가 한계성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향은 휴머니즘이다. ‘인간다움’의 존중과 ‘참인간다움’ 찾기를 휴머니즘의 본질로 이해한다면, 이는 통일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할 복잡 다양한 혼란과 무질서를 수습, 정리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통일한국 시대의 문학교육의 실천 덕목은 통일이전과 통일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통일이전은 문학교육의 목표가 ‘이해’를 중심으로 수행될 것이다. 북한문학과 북한문학사에 대한 이해, 나아가 통일문학사를 위한 준비단계가 해당된다. 또한 북한주민의 삶을 이해하기 위하여 탈북자 제재의 문학이나 재중조선족 작가들의 작품도 교육적 자료로 요긴할 것으로 본다. 통일 이후의 문학교육은 통일문학사, 통일문학교과서를 중심으로 수행할 수 있다. 특히 남북한의 이념을 초월한 고전문학이나 보편적 문학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세계문학에 대한 수용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 이후 문학교육의 모형으로 통합서사의 활용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 참고문헌

- 권지은, 「북한의 외국문학 교육에 대한 교재론적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6.
- 국립국어원, 『새국어생활』 22-3, 2012.
- 김대행, 『통일 이후의 문학교육』, 서울대출판부, 2008.
- 김미영, 「‘통일교육’을 위한 ‘문학’ 교과서 개선방안 연구-2012 고시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 교과서의 현대소설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한국문학교육학회, 2015.
- 김미영·유리, 「통일시대 문학교육의 한 방법, 간문화적 역량을 중심으로-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청담어문교육』, 청담어문학회, 2015.
- 김성수, 「통일 담론과 남북한 문학사 소통방안」,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학회, 2014.
- 김종균, 「통합 서사의 개념과 통합을 위한 문화사적 장치」,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분단 체제를 넘어선 치유의 통합 서사』, 선인, 2015.
- 김중신, 「통일시대 어문 교육의 방향」, 『국어국문학』 168, 국어국문학회, 2014.
- 박갑수, 「남북통일 대비 국어교육의 문제 -남북한 언어의 통일을 위한 과제」,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1,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1999.
- 박순경, 「한국 교육과정에서의 ‘범교과 학습’의 실태와 개선 방안」, 『교육과정연구』 24, 한국교육과정학회, 2006.
- 박영목 외, 「통일에 대비한 국어교육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15-1, 이중언어학회, 1998.
- 박영자, 「다문화 시대의 한반도 통일·통합의 가치 및 정책 방향: 상호문주의 시각과 교훈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17-1,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2.
- 박인기, 「남북한 국어교육 연구의 성과와 전망」, 『국어국문학』 115, 국어국문학회, 1995.
- 박종철 외,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 방향』, 통일연구원, 2013.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5 남북 통합 지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5 통일 의식 조사』.
- 엄재호 외, 「대학 통일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평화연구』 21, 경북대학교 평화문

- 제연구소, 1996.
- 오영훈, 『다문화교육으로서 상호문화교육-독일의 상호문화교육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15-2,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09.
- 오창은, 『계급의식과 민족의식, 갈등과 화해의 도정-북한에서의 1920년대 후반기부터 전반기의 문학사 서술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50, 민족문학사학회, 2012.
- 오태호, 『북한문학사의 근대소설에 대한 인식론적 변화 양상 고찰-『조선문학사』 7(2000)의 1910~1926년 시기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50, 민족문학사학회, 2012.
- 이인제, 『북한의 국어과 교육에 관한 연구』, 교원대 박사학위 논문, 1996.
- 임옥규, 『북한 교과서 개편에 따른 문학교육 양상-김정일 시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기술』 13, 단국대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12.
- 임철성, 『북한의 화법교육연구』, 『새국어교육』 53, 한국국어교육학회, 1996.
- 주재우, 『통일 이후 고전문학 교육과정 개발 방향』, 『어문학』 127, 한국어문학회, 2015.
- 차승주, 『김정일 시대 북한의 학교 통일교육』, 『북한학연구』 8,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2012.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10.
- 추병완, 『통일교육에서의 간문화 역량 계발』, 『윤리교육연구』 33, 한국윤리교육학회, 2014.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통일 및 미래사회 대비 남북한 교육과정 통합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세미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14-67, 2014.
- 한길연, 『한민족 통일시대를 위한 고전소설의 성찰과 모색』, 『어문학』 127, 한국어문학회, 2015.
- 한만길 외, 『남북 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교육통합 방안 연구 - 남북한 평화공존 상황을 중심으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1.
- 홍지선, 『북한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 연구-『국어문학』 교과서와 『문학』 교과서의 비교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38,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 Abstract

# Literary Education' s Reactions to Reunified Korea

Kim, Mi-Young

This study set out to search for the directions and methods of literary education “after” reunification of two Koreas in preparation of the inevitable event in the Korean Peninsula that had been divided for approximately 70 years.

In preparations for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be given a priority over other fields in terms of importance and value, which is demonstrated in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which conducted a research on the specific tasks of education integration, and the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which investigated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s” in preparation of unification. Discussions about unification education at the level of individual subjects were more active among the ideological subjects such as Social Studies and Ethics than objective knowledge system-oriented ones. Korean education conducted various studies on the topic including the researches that examined and criticized the rigidity of education in North Korea through North Korean textbooks, the ones that compared North and South Korea or made proposals for the Korean education policies of North and South Korea in educational ideologies, goals, content, systems, and pedagogical methods, and the ones that addressed the changing patterns of Korean education by the periods and the content of literary education related to idolization during certain periods.

In the new era of unified Korea, the direction of literary education should take a central axis in “communication and integration” instead of “understanding” in the domain of goals and in “diversity” instead of ‘homogeneity’ in the domain of

content. The society of reunified Korea should embrace intercultural education policies based on interculturalism on the premise that it would become a multicultural society of some sort since the multicultural policies currently implemented at the national level show their limitations. Another direction of literary education should be humanism. If the essence of humanism includes respect for "humanity" and search for "true humanity," it will be able to serve as an ideological foundation to settle and arrange complex and diverse confusion and disorder that may happen in the Korean Peninsula after unification.

The practical virtues of literary education in the new era of unified Korea can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reunified literary history and the selection of materials for literature textbooks. Acceptance of classical and world literature can be kept in mind when selecting those materials. Models of literary education after reunification need to respect the academic content of ethnic Korean scholars in China and can utilize integrated narratives.

⊕ **Key Words** : Reunified Korea, Literary Education, multicultural policies, humanism, communication and integration, reunified literary history, classical and world literature

